

문화

평화·평등 그리고 자유·인권...

예술꽃으로 '5월광주' 수놓다

'오월의 꽃'전 작품 공개... 13개국 작가 25명 참여

평화와 평등, 그리고 자유와 인권. 광주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가치들이 '예술의 꽃'으로 형상화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국내외 대표 작가들이 화려한 예술작품으로 '5월 광주'를 수놓는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4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의 꽃'(12일~6월13일·광주시립미술관, 콘스트랄레 광주)전의 참여작가와 작품 이미지 등을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시립미술관,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오월의 꽃'전은 13개국 2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로, 올해 열리는 5·18 관련 전시로는 최대 규모다.

먼저 참여 작가와 작품의 면면이 화려하다. 이번 전시에는 미켈란젤로 피사렐로(이탈리아)·주세페 스타

포네(·)·토니 아우슬러(미국)·알프레도 자(칠레)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다. 미켈란젤로 피사렐로는 1960년대 세계 전위미술을 주도했던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가난한 예술)의 대표 주자로, 그의 '동해'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담은 설치작품이다.

또 주세페 스타포네는 네 명의 신자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탁자 주변으로 입산부가 맴돌고 있는 장면을 화면에 담은 영상 작품 '반복'을 통해 생명과 제도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알프레도 자, 차이 유안·지안 준시(중국)는 관람객을 사로잡을 이색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알프레도 자는 전시장 입구에 꽃이 담긴 100개의 화분을 설치한 뒤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어 꽃이 시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백화제방'을 전시한

다. 외부적인 압박에 시들어 가는 꽃을 통해 광주가 경험했던 과거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예술가인 차이 유안·지안 준시는 12일 오후 5시 개막식 행사로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서 동서양의 대표 양념인 간장과 토마토케첩을 서로에게 뿌리며 싸우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이 퍼포먼스는 동서양의 충돌과 정치적인 다름 등을 해학적으로 보여주며, 전시기간 동안은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강성욱·김주연·백남준·변종곤·이경호·이불·이이남·허달용씨 등 국내 대표작가들이 선보이게 될 작품도 기대된다. 김주연씨는 산업용 비닐포대를 묶어 만든 '티셔츠'를 전시하고, 이불씨는 목욕탕 욕조를 이용해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한 '천지'를 출품한다.

또 이이남씨는 뒤주 속에 LED 화정을 설치한 뒤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주세페 스타포네 작 '재생'



김주연작 '티셔츠'



미켈란젤로 피사렐로 작 '동해'

몸뭉치라는 사람들의 영상을 재성한 '5분 18초의 3개의 뒤주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고립된 채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광주의 아픔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재단 관계자는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은유적인 기법으로 재해석된 색다른 5·18 관련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Table listing winners and participants of the 55th Ho Nam Art Festival. It includes categories like Piano (1-2 grade), and lists names and their respective schools or locations.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14일(금) 오후 1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이웅우> <아이 웨이웨이> <오쿠이 엔위저> <케이 소피>

5월 광주 정신 예술적 가치 조명

학술회의 11~12일 전남대... 국제 미술계 거장들 참여

'오월의 꽃'전 못지 않게 부대행사로 국제학술회의(11~12일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의 두 얼굴-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광주정신의 정신적,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 대거 참여한다. 또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의 정치철학자 리처드 노블 교수, 일본의 대중고 있다. '예술의 두 얼굴-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광주정신의 정신적,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이 학술회의에는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디자인 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 케이 소피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마미 카타오카 도쿄 모리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등 국제 미술계의 별들

이 밖에도 제8회광주비엔날레 주제인 '만인보'의 저자 고은 시인,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웅우 상임부이사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 최철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율성음악제' 실내악 페스티벌 무대

6~9일 유·스퀘어문화관 등서...TIMF 앙상블 출연

제 6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실내악 페스티벌이 6~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등에서 열린다. 실내악 페스티벌은 가을에 열리는 정율성국제음악제 본 행사에 앞서 음악제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로 지난해 첫 번째 행사를 치렀다.

제음악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소풍의 '피아노협주곡 1번' 등이다. 8일 금호아트홀에서는 오페스(opus) 앙상블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2009서울국제음악제에 맞춰 발족한 오페스앙상블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박지용씨가 상임지휘자로, 서울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 류재준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6일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는 바리톤 정복기(한양대 교수) 초청 독주회가 열린다. 정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과 슈베르트, 슈만의 가곡과 정율성의 '연수요' 등을 들려준다. 반주자는 일본의 피아니스트 미나부 마즈키와가 맡는다. TIMF실내악단은 7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무대에 선다. TIMF(통영국제음악제) 실내악단은 최우정(서울대 작곡과) 교수가 이끄는 앙상블로 지난 2001년 창단 후 통영국

이날 공연은 협연자가 눈에 띈다. 박종화(서울대 교수)씨는 소풍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들려주며 백주영(서울대 교수)씨는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협주곡 2번'을 선사한다.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 조곡 II'도 들려준다. 마지막날인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이정식 재즈밴드 초청 연주회가 열린다. 합평 출신으로 현재 수원



<이정식> <백주영>

여대 대중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씨는 이날 공연에서 'One summer night', 'Over the rainbow', 'Danny boy' 등을 들려준다. 정율성국제음악제 중국 행사는 6월 9~10일 중국 상하이 엑스포 공연장에서 열리며, 광주 본 행사는 오는 10월 7~10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전석 초대, 문의 062-511-12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문인들 함평생태관광 팸투어

6~7일 전남기행

"나비의 고향 함평으로 오세요."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영)가 주최하는 '제4회 전국문인 초청 전남기행'이 오는 6~7일 이틀 동안 함평 엑스포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전국문인 초청 나비 기행'(함평 생태관광 팸투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학기행은 문인들의 친목도모와 정보 교환, 창작열

을 북돋우고자 실시해온 행사로 이번으로 4회째를 맞는다. 이번 기행 참가자들은 엑스포공원(나비축제 관람)을 시작으로 생활유물전시관, 모평·오두마을, 용천사, 농촌마을 체험지, 자연생태공원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직녀에게'로 알려진 문명관 시인을 초청해 삶과 문학세계 이야기를 듣는 초청문학강연도 준비됐다. 문의 062-363-995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동문화재단 '문화관광해설사' 수강생 모집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2010년 남도 문화체험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체험관광해설사는 한옥체험·도자기·천연 염색·템플스테이 등 남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광객을 모집·인솔하는 전문 해설사이다.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5월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20만원. 문의 062-674-656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lueberry' (블루베리)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fruit and text promoting its health benefit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mdamwon' (상담문의) and 'Gullob' (글로블).

Advertisement for 'Aielesia' (아이엘리시아) featuring a chef and text promoting a 'Family Gathering' (가족모임) even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ielesia' (아이엘리시아).